

stu.alltogether.or.kr

2011년 1월 17일

행위익대 미화. 경

투쟁에 지지

∴ 대학생과함께

성비 노동자들의

의와 연대!

홍익대 미화·경비·시설 노동자들의 학교 본관 점거 투쟁이 2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새해 첫날 느닷없는 해고 통보를 받은 170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청소한 죄” 밖에 없다며 홍익대 당국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했다. 식대는 하루 3백 원이고,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 됐다. 토요일에도 수당 없이 일해야 했다. 이런 열악한 현실과 고용불안을 참지 못한 노동자들은 작년 12월 노조로 뭉쳐 고

고 했다가 질타를 받았던 홍익대 총학생회가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홍익대 총학생회는 여전히 ‘외부세력의 학내 점거나 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홍익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홍익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익대 학생들은 물론 학교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홍익대 당국에 맞서야 한다.

그동안 대학 미화·경비·시설 노동자들은 존재하

용 승계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정당한 요구에 흥익대 당국은 업체를 바꿔 전원 해고로 대응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흥익대 본관에서 “청국장 끓이고, 고등어 구워” 가며 “이사장이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투지를 다지고 있다.

이 투쟁에 대한 연대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에 열린 집중 집회에는 무려 1천여 명의 노동자·학생·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가해 뜨거운 단결을 과시했다.

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온갖 설움과 고통 속에 남 몰래 눈물을 삼켜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고려대 · 동국대 · 연세대 · 이화여대 등에서 미화 · 경비 · 시설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과 투쟁, 승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연대와 사회적 연대는 이 투쟁들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 승리의 행진이 홍익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투쟁의 승리는 새벽부터 일하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해 온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픈 우리 88만 원 세

이런 연대의 힘 덕분인지 투쟁을 지지하지 않겠다

춧불 대학생 '고대녀' 와 함께 가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날짜: 미정 (문의하시면 확정 후에 알려드려요)_</>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새내기 맞이 포럼 – 미니 맑시즘2011

<http://www.marxism.or.kr>

대의 승리가 될 것이다.

농성장 지지 방문



문의

010-4223-0647

간접고용철폐 공동행동
촛불집회 함께 갑시다

r/mini2011

날짜: 1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홍익대